

JUST ONE MESSAGE!

단
하나의
메시지

지은이 Dr. Naji Ibrahim Al-Arfaj

이슬람은 예언자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그분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의 삶의 방법입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단 하나의 메시지

JUST ONE MESSAGE!

차례

I. 미리 던지는 질문들	5
II.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기	6
III.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17
IV.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19
V. 꾸란에서 말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21
VI. 결론	23
VII. 참고문헌	31

I

미리 던지는 질문들

1. ‘단 하나의 메시지’란 무엇인가?
2. 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3. 이에 대해 꾸란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4.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II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기

아담이 창조된 후, 인류의 역사를 통해 오로지 하나뿐인 말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인류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를 상기시키고, 그들을 옳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전달자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와 같은 많은 예언자와 사도들을 파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분께만 경배드리며,
그 분의 계율을 지킬지어다.

진정한 하나님, 창조주에 대해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노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무함마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중요한 임무와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셨으니 그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2.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3. 사람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것.
4.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율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5. 사도들의 추종자들에게 종교 및 도덕적 문제와 같은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
6.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거나,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7. 사람들에게 최후의 심판일에 대해 말해주고, 무엇이 천국으로, 또 무엇이 지옥으로 인도할 것인지 말해주는 것.

즉, 예언자들, 사람들, 동물들, 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 분께서 우주와 자연,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 그리고 사후의 삶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유일성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경전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과 꾸란 속에서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탐구하거나 올바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는 유일한 몇 가지 특성을 정의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신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한 분이신 하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자 이십니다.
- ◎ 한 분이신 하나님은 둘, 셋 또는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 분께는 어떠한 동반자나 대등한 자도 없습니다.
- ◎ 한 분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누구도 현세에서 그 분을 볼 수 없으며,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 ◎ 한 분이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로서, 죽거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 없습니다.
- ◎ 한 분이신 하나님은 어머니, 아내, 또는 아들과 같은 어느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음식, 마실 것, 도움과 같은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존재들은 그 분을 필요로 합니다.
- ◎ 한 분이신 하나님의 속성은 유일하여 그 무엇도 그분의 속성과 같거나 비교하여 견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준과 특성들을 고려할 때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거나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위에서 언급한 단 하나의 메시지에 관하여 성경과 꾸란의 구절들은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생각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려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기독교에 관한 많은 책들과 학습자료, 그리고 여러 기독교인들과의 수많은 대화에 기초해서 나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그들의 교리에 포함시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성부 (아버지이신 하나님)
2. 성자 (아들이신 하나님)
3. 성신 (성령이신 하나님)

그런데 객관적으로 정확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상식과 단순 논리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이성적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 ⊙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고 말하면서 ‘세 분의 하나님들’을 언급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세 분 안의 한 분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한 분 안의 세 분이신가요?

이에 대한 기독교적 논리에 따르면 이 세 분 ‘신들’은 각기 다른 신분, 이미지, 역할 그리고 여러 기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1. 성부로서의 하나님 = 창조주
2. 성자로서의 하나님 = 구원자
3.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 상담자(조언자)

만일 성자로서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진정 하나님이시거나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일부라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는 성경 자체의 말씀들에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요한복음 5장 37절, 새 국제 성경 번역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새 국제 성경 번역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 새 국제 성경 번역판)

위의 구절들과 성경의 다른 원문들에 근거하여, 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리에 접근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논리와 ‘누구도 그 분을 본 적이 없고 그 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성경의 증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예수 시대에 유대인들, 예수의 가족 그리고 예수의 추종자들은 예수를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가요?

→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관련하여 어떤 비밀이 있으며 숨겨진 목적이 있는 것인가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주라 나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중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이사야서 45장 18-19절, 킹 제임스 번역판)

과연
진리는 무엇인가요?
반드시 이 구절을 다시 읽고 그것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성경과 꾸란 속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추구하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행의 끝에, 이 책과 특히 아래 인용된 구절들을 비판적이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또 신중하게 읽어보신 후, 저는 여러분의 반응이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객관적이기 위해 다음
구절들을 논평 없이 그대로
인용하니,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신중하게 비판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II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신명기 6장 4절, 킹 제임스 번역판)

“한 분이신 그분께서 그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말라기 2장 15절)(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
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
니라.”

(이사야서 43장 10-11절, 킹 제임스 번역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새 국제 성경 번역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이사야 45장 21-23절, 새 국제 성경 번역판)

위의 구절들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몇몇 구절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다른 유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IV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보라, 어떤 사람이 나아와 그분(예수)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그분(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16, 17절, 킹 제임스 번역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새 국제 성경 번역판)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 킹 제임스 번역판)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마가복음 12장 29절, 새 국제 성경 번역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새 국제 성경 번역판)

당신은 하나님께서
셋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심을
확인해주는 다른 절들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V

꾸란에서 말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말하라! 하나님 그 분은 한 분이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낳지도 않으셨고 태어나지도 않으셨나니 어떤 것도 그분과 대등한 것이 없도다.”

(이클라쓰 (112)장 1절-4절)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 내게 경배하라.”

(안비야 (21)장 25절)

“실로 하나님은 셋(3위)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신도 없느니라. 만일 그들이 (그런 불경스런) 말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참으로 가혹한 형벌이 불신자들에게 내려질 것이니라.”

(마이다 (5)장 73절)

“하나님과 함께 할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다.”

(나물 (27)장 61절)

“하나님과 함께 할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과) 비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위에 계시노라.”

(나블 (27)장 63절)

“하나님과 함께 할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는가? (무함마드여!) 말하라, 만일 너희가 진실하다면 그 증거를 가져오라고.”

(나블 (27)장 64절)

진실로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한 이 메시지들이야말로
꾸란의 본질적인
핵심 주제입니다.

VI

결론

성경(구약, 신약)과 꾸란에는 이러한 구절들과 유사한 증거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2절, 새 국제 성경 번역판)

성경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리라. 나 곧 나는 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3장 10-11절, 킹 제임스 번역판)

그러므로 이러한 확인들에 의해 신이라고 주장되는 많은 이름들, 즉 예수, 성령, 브라마(범천, 힌두교 최고 의 신), 비슈누(힌두교 3대 신의 하나), 시바 크리슈나

(비슈누의 제8화신), 또는 부처와 같은 존재들에게 신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고 또한 한 분이신 하나님의 대리인도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그릇된 믿음으로 유대인들이 다른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민수기 25장 3절, 킹 제임스 번역판)

그래서 예언자 모세가 금송아지를 파괴하였던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초기 기독교 유니테리언 공동체, 에세네파 교도들은 온갖 고문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만들어낸 삼위일체설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의 일신교적 가르침만을 따랐던 것입니다.

요약하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사도들은 창조주이신 한 분 하나님에 의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도록 보내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
 분께만 경배드리고, 그 분의 명령과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똑같은 하나의 말씀만을 가르쳤으므로, **그들의 종교는 같은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이 신의 예언자들이 가져온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순종**’이라는 이 말이 아랍어로 ‘**이슬람**’을 의미합니다.

꾸란은 ‘**이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종교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와 같은 꾸란의 진실은 이 전에 계시된 성서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 언급된 메시지를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모든 예언자들(무함마드를 포함하여)을 믿어야만 하며, 그들의 올바른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행복과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올바른 구원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인가요?
- ⊙ 진정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 ⊙ 하나님의 참된 계시는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정의를 성꾸란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모든 성서에서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임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꾸란 구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내려진 계시(꾸란)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내려진 율법을 믿으며, 모세와 예수(구약과 신약),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내려진 율법을 믿으며, 예언자들을 차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믿는다 라고 말하라.”

(이브란 (3)장 84절)

삼위일체교리에 관해서는 예수 자신이나 그의 교우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 이전의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가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지, 예수를 창조주와 동일시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꾸란에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완전한 유일신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한 분이신 하나님, 창조주, 우주를 유지하게 하시는 분, 동반자나 가

죽을 두시지 않는 최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그것입니다.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떠한 성자든 구세주든 한 인간과 그의 창조주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꾸란에 말씀하시기를,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 종교의 한계를 넘지 말며 하나님에 대한 진실 외에는 말하지 말라. 실로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사도로서 마리아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었노라. 하나님과 예언자들을 믿고 삼위일체를 말하지 말라. (삼위일체를) 포기하라 그러면 당신들에게 복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노라. 천지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니 보호자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

(니짜아 (4)장 171절)

꾸란은 예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예수여! 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와 나의 어머니를 경배하라고 말하였느냐? 하시니, 영광을 받으소서. 저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으며 저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도 없나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

였다면 당신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심중을 아시나 저는 당신의 심중을 모르나니 당신은 숨겨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이다 5)장 116절)

“당신께서 제게 명령한 것 외에는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으니 나의 주님이요 너희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였으며, 제가 그들과 함께 있음에 저는 그들에게 증인이 되었고, 당신께서 저를 승천시킨 후에는 당신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나니 당신은 모든 것의 증인이십니다.”

(마이다 5)장 117절)

“당신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그들은 당신의 종복들이며 당신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면 실로 당신께서는는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마이다 5)장 118절)

꾸란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가진 것을 부정하며, 또한 예수 자신이 가장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들을 가질 필요가 없노라.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분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 때 말씀을 내리시니 “있어라” 그러면 있느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요 너희 주님이시니 그분만을 경배하라.
이것이 가장 바른 길이니라.”

(마리아 (19)장 35-36절)

또한 예수는 자기 후에 올 다른 예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말하니, 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도이니라. 나 이전 토라에 있는 것을 확인하며, 나 이후에 예언자가 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니, 그의 이름은 “아흐마드(찬미받는 자)”이니라.”

(사프 (61)장 6절)

‘아흐마드’는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의 다섯 가지 이름 중 하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VII

참고문헌

1. NIV 한영해설성경 개역개정 4판, (2007) 아가페출판사.
2. 킹 제임스 성경전서 3판, (2006) 그리스도 예수안에.
3. 성경 (2005)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이슬람 문고 시리즈 ⑤

단 하나의 메시지 JUST ONE MESSAGE!

초판 발행일 2009년 2월
발행처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2-21
Tel : 793-6908, 794-7307
Fax : 798-9782
Homepage : <http://www.koreaislam.org>